

유가 급등에 주유소 현장 방문·점검

김관영 도지사, 석유업계 관계자 간담회 개최... 도내 주유소 직접 방문 "유류가격 인상 자제" 요청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유가 급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 전주상공회회장, 전북주유소협회 협회장과 지부장 한국석유유통협회 전북지부장 등 석유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업계의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도내 석유업계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했다.

이단·미국 전쟁(2월 28일 발발) 이후 도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원 이상 상승했다. 도는 이러한 유가 급등이 도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간담회를 마친 김 지사는 가격 안정에 앞장선 주유소를 찾아 업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동행한 석유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이러한 시계가 도내 주유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유가 급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일 전북토탈에너지스지원센터에서 석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주 만성동 한 주유소를 찾아 주유를 하는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함께 달라고 요청했다.

이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부담을 우선 고려한 현장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업계와 도가 긴밀히 협력해 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도는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독려하는 동시에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북도·석유관리원·14개 시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집중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및 불법 유통 여부 △법정 가격 표시 관 적정 설치 △유가 상승기 편승 매점매석 행위 등이다.

가짜석유 유통 등 형사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즉각 고발하고 가격표시 위반 등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시군을 통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제 유가 불안이 도민의 일상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황 전개에 따라 점검 기간과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들께서 지금 이 상황을 매우 힘겹게 버티고 계신다. 주유소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도민과 함께 견뎌주시면, 그 자체가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도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전북도 또한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01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익산 지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군산·익산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과 함께 민생경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산·익산새마을금고와 지역경제 활력 맞춘

도, 현장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지원·지역건설 활성화 정책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익산 지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군산·익산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과 함께 민생경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전주·완주지역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군산·익산 지역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서민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새마을금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금융기관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도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등 주요 민생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마을금고가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 금융 생태계 조

성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지지와 공간대 확산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관리, 사회연대경제 주체에 대한 대출 확대 등 사회적 금융 기능 강화와 지역 중소기업인 지원 금융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군산과 익산은 전북 경제의 핵심 거점이며,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민금융을 책임지는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며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권역별 새마을금고와의 현장 소통을 지속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01만호 기자

전북 소상공인 정책 대전환, '생존'을 넘어 '성장의 길'로

전북연구원 '국정과제 K-소상공인 육성위한 '전북형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

전북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 소상공인 총사자수는 총 37만 4,802명으로 도내 총종사자 중 62.6% 사업체수는 총 27만 3,327로 도내 총사업체수 중 96.3%를 차지하고 있어 민생경제의 큰 축으로 경제적·정책적 중요성이 높지만, 그간 전북 소상공인 정책은 이 '성장'보다 '경영안정'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마주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부산 소상공인 육성(B-LICON: Busa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전략을 수립,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부산 LICON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전북 도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동력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역경제 버팀목의 역할을 넘어 지역 경제 역동성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장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단순히 법정 정의에 따른 기준이나 생애주기로 구분

하기보다 산업단계, 혁신성 성장잠재력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맞춤형 육성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소상공인 성장 및 지원사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 성장 기반 구축형 모델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으로 성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성장패키지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셋째, 지역경제 주체로서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투입을 위한 제도 및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전북 소상공인 성장추진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넷째,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전달·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책임 맡은 김수은 책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이자 지역의 핵심 고용 창구로서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정부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밀착 대응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의 관점인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수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전달·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책임 맡은 김수은 책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이자 지역의 핵심 고용 창구로서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정부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밀착 대응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의 관점인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수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전달·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책임 맡은 김수은 책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이자 지역의 핵심 고용 창구로서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정부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밀착 대응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의 관점인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수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전달·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책임 맡은 김수은 책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이자 지역의 핵심 고용 창구로서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정부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밀착 대응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의 관점인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수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투어패스, 중국 '한유망'서 판매 본격화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대표 관광상품인 '전북투어패스'를 중국 최대 한국 여행 정보 플랫폼인 '한유망'에 입점시키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급증하는 중국인 개별 자유여행객(FIT)을 겨냥해 전북 관광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유망은 중국 내에서 한국 여행 정보와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번 연계 판매를 통해 전북투어패스 통합권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권, 경기전 및 광한루원 단독권 등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관광상품이 현지에서 판매된다.

특히 한유망의 실시간 시스템 연동을 구축해 상품 구매 즉시 모바일 바코드가 발송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중국 관광객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도내 주요 관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판매 제휴가 신규 관광 수요 창출과 함께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한 도내 체류시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도·시군·관광재단이 참여하는 관광분야 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관광 마케팅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상품 판매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번 한유망 판매 개시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관광지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수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전달·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책임 맡은 김수은 책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이자 지역의 핵심 고용 창구로서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정부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밀착 대응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의 관점인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수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후보자 공개 모집

효행·선행 등 6개 부문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도는 효행·선행·변학·예체능·국제화·장애 등 6개 부문에서 1명씩 시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은 4월 1일부터 4월 9일

까지 접수하며, 시장·군수와 각급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가 추천할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교육협력과 청소년팀(063-280-4608)으로 문의하면 된다.

/01만호 기자

부안군 공고 제2026-500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 예정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중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청취하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 명칭 : 새만금개발청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3. 사업예정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하서면 백련리 일대
4. 사업개요(L=9.22km) - 코앞: 9개소/1,050m(강대교: 4개소/720m)
- 지하RC Box: 1개소/70m
- 출입 시설: 7개소(일제 5개소/평면 2개소)
5. 사업기간(예정): 실시계획승인일 ~ 2030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점을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사: 세계 은행(열람장소 비치)
7. 열람기간: 신분공개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부안군청(새만금도시과) ☎063-580-4701
9. 의견제출기간: 주민 열람 시작일 부터 열람기간 만료일 까지
10. 의견제출방법: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에 비치하여 원할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신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개별 서면에 따라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기간 내 서면 제출
11. 열람시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시행에 따른사업인정 및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도시계획팀전화 063-580-47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부 안 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